

미국의 축제복식과 전통복식

*한동대학교 사범대학 가
정교육과 교수

이 희 현*

목 차

I. 서 론

II. 미국의 역사와 문화

III. 미국의 축제 복식과 전통복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미국에 전통복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미국에 전통이 있는가 라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 동일한 민족이 이어온 동일한 문화의 흐름만이 전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은 전통이 없는 나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 대륙에 이미 자리잡았던 인디언 문화, 1600년대 이후의 각 민족이나 국가별로 다른 유럽 문화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밀려 들어온 이민족들의 문화가 200여년을 계속되는 동안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고 전통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미국에 실제로 많은 민족과 인종이 살고 있고 거리에서 이들과 부딪히게 되지만 얼굴색 정도의 구별외에는 실제로 그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아 낼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근원과 관계없이 일상생활속에서는 지극히 미국적으로 지내며 일상복은 당연히 그들의 전통복과는 거리가 멀다. (때로 전통 복식을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인도인이나 아랍인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민 온 먼 나라에서 잠시라도 자신의 고향, 조상을 생각하게 되는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이 그들 자신의 고유한 축제나 명절이며, 이 때 만든 가지고 있던 자기 나라의 전통복을 꺼내어 입게 되고 혹 입지 못하더라도 축제의 행사에 등장하는 同族의 의상들을 통해 조국에 대한 향수는 물론 자신의 조국이 잊혀져서는 안되는 고향의 땅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옷

을 입고 지내 왔던 또 하나의 새로운 민족과 인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미국의 문화 속에서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관리와 문화 수용에 사회·정치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방법의 모색에 힘쓰는 까닭으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래 여전히 제 1의 강국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II. 미국의 역사와 문화

메이 플라워호가 뉴 잉글랜드에 도착하기전인 1620년도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처음으로 버지니아에 정착한 이래 19세기 초반까지는 북부 유럽의 독일인, 네덜란드인, 스칸디나비아인, 프랑스인 등이 이민의 자리를 잡고, 1890년 이후 남부, 동부의 유럽인들도 미국 땅에 발을 딛기 시작하여 뉴욕, 디트로이트, 시카고, 필라델피아에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1908년에는 뉴욕에서는 ‘용해의 도가니’ (The Melting Pot)라는 연극이 상연 되었고 제목이 시사하는 의미는 이민에 대한 이미지를 모색하는 것으로 미합중국은 이렇게 이민한 모든 민족의 장점을 결합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1960년대에는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하여 서유럽에서는 이민의 수요가 줄고 동유럽의 망명자들만이 미국을 찾을뿐 중남미나 아시아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베트남 전쟁 이후의 베트남 난민, 필리핀, 한국, 타이완, 인도,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등에서 이민들이 도착하였고 1980년에는 쿠바와 아이티로부터 이민이 쏟아져 들어왔다.¹⁾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미국은 이 새로운 시민을 同化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19세기에 나타난 대중문화 즉 대중신문, 영화, 라디오 1946년 이후의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인하여 同化는 더욱 더 효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²⁾

1900년대 초까지만해도 미국은 그럴듯한 ‘용해의 도가니’로 여겼으나 이처럼 수많은 인종이 밀어닥치고, 가난과 빈곤이 심화되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오늘날에는 수많은 민족과 인종은 서로 동화되지 못한채로 자신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샐러드 보울’에 비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의미는 용해되지 못하고 겹돈다는 의미에서 미국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릇 속에서는 섞이지 않는 듯 보이는 샐러드가 실제로는 소스의 종류에 따라, 과일이나 채소의 적절한 혼합에 따라 기가 막힌 맛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다종 다양한 이민족들이 서로 자기자신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와 노력을 통해 미합중국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팅턴(Huntington)은 문화적 공존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뜻 보면 보편

1) 이주영, 황혜성, 김연진, 조지향, 김형인공저, 미국 현대사, 서울:비봉출판사, p.329

2) David Nye, 임찬빈역, 현대의 미국사회, 탐구당, pp.194-195.

3) 새뮤얼 헌팅턴,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pp. 437-438

4) 마빈 해리스, 원재길 옮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황금가지.

적일 듯 싶은 한 문명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대부분의 문명들에 공통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원적 문명의 세계에서는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동질성을 모색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말한다.³⁾

우리나라나 일본 혹은 중국등 문명의 역사가 독자적이면서 오랜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양문화권이나 한때 세계사적 위치에서 강국이었음을 과시하던 유럽의 서구 문명들은 미국은 문화나 전통에 대해 자칫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짧은 역사는 장구한 문명의 유적이거나 유물들 앞에서는 견줄 만한 것이 없다는 너무나 단편적인 평가가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통이나 문화란 계속해서 만들고 창조해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데 노력한다. 이민자들이 이룬 나라이며 조상이나 뿌리가 저마다 다르고 그들을 섬기는 방식이 민족이나 인종마다 다르며, 물론 그들이 즐기는 놀이와 축제 문화가 각기 다르지만 서로 그들의 방식을 유지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러한 특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공존하고 이것들이 미국의 전통으로 자리잡아 간다는 것이다. 물론 때로 이러한 다종다양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소수의 극단론자가 등장하여 살상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인종, 여러 다른 하위문화들이 미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는 자성적인 보고도 수없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⁴⁾

이 글은 이미 이루어지고 다듬어져 전통을 이룬 문화가 지닌 우월성이라든가 취약한 특성을 찾아내고자 함이 아니며 또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전통복식을 살펴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종과 민족이 가진 각각의 문화의 전통과 특색들을 들어내어 그리하여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새롭고 거대한 복합된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전통복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Ⅲ. 미국의 축제복식과 전통복식

1. 미국의 축제문화

문화의 내용을 달리하는 모든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경축일, 축제일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모여서 그들만의 전통적인 놀이, 이야기, 춤, 음식 등을 즐기면서 그들의 놀이문화 혹은 축제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와같이 그들의 고유한 연중 축일행사나 풍습은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거의 갖고 있는 문화관습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축제일의 행사들도 다양하여 집과 뜰을 축제의 종류에 따라 장식함은 물론 그 축제에 어울리는 의상들을 차려 입고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아 저녁을 함께 한다.

목화, 옥수수, 딸기, 사과, 오렌지 등의 특별한 곡물들이 기본이 되는 축제도 있어서 밴드가 중심도로에 계속 행진을 하는 동안 화려한 관을 쓴 여왕, 수확물을 치켜든 농부들이 자신의 것이 1등으로 뽑히기를 원하며 행진의 줄을 잇는 경우도 있다.

이런 축제는 미국에서는 크게는 국가단위로, 州단위로 혹은 市나 카운티(County)단

위로 곳곳에서 달마다, 계절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민과 이주로 이루어진 나라만큼 때로는 移住 미국인들은 그들 민족의 고유 축제를 즐기며 이런 날 그들은 동족 친구나 친지들과 어울려 그들의 뿌리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미국의 다양한 축제중에서 잘 알려진 것 들은 지역의 유명한 인물, 전설, 풍속적인 것에 기본을 둔 것들이다.

이를 기념하거나 축하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책, 팔기위한 공예품들을 마련하거나 강연, 연설, 세미나를 열기도 하는데 특히 축제에 맞는 특별한 의상들을 만들어 입거나 거리에서 팔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이러한 의상을 입고 축제의 분위기를 즐긴다.

따라서 사람들은 연중의 특별한 축제일을 흥분되게 기다리는데 이를 위해 학교와 도서관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활력있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많은 축제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 학교의 일년 행사 계획속에 반영하며 이러한 날을 즐기는 행사를 계획하여 학부모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⁵⁾

물론 이같은 학교행사에서도 축제의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는 의상들은 빠질수 없는 준비물이며 엄마들은 옷이나 모자를 직접 만들어 주거나 사입하게 되는데 천이나 재봉용품을 파는 가게에서는 여러 패턴회사들 이에 맞춰 내놓은 패턴을 항상 준비해 놓고 주부들이 그 준비물들을 고르느라 바쁜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달력에 지정된 공휴일 이외에도 많은 명절이나 페스티벌이 표기되어 있으며 혹 달력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축제나 명절이라고 여기는 날들이 있다.

축제일은 주제별로 6가지 정도로 구분된다.⁶⁾

1)기독교가 전파되기 전 그리스, 고대 로마, 유럽 등에 바탕을 둔 축제일로 할로윈(Halloween), 메이 데이(May Day)외에 78가지

2)夏至나 春分 등 한 해의 특정 시기와 계절의 시작과 끝을 축하하는 페스티벌 혹은 일 년중 특별히 여기는 축제로 중국, 스페인, 베트남, 인디언, 아프리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54가지

3)전설이나 전통에 뿌리를 두거나 특별한 전설을 축하하는 축제로 에이프릴 폴스데이(April Fools' Day), 발렌타인스 데이(Valentine's Day)외에 156가지

4)전쟁 같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사건, 유명한 사람의 생일, 국가의 독립 등을 기념하는 축제로 189가지

5)市, 州, 국가적 자부심에서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혹은 여러 가지 사교활동이나 모임 등을 격려하는 축제로 달걀, 옥수수, 버터의 날 등이 있으며 174가지

6)골프, 각종 경기, 말 경주 등 중요한 스포츠 행사들을 축하하는 것으로 168가지
물론 이렇게 분류된 것들 중에는 간혹 서로 겹쳐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름만 있을 뿐 유명무실하게 이렇다 할 행사나 축제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음은 물론이다.

아무튼 숫자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축제나 명절은 각 주제마다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다민족·다인종들이 즐기는 다양한 축제의 내용이 총 집합되어 있다.

이처럼 오늘날 미국에는 유럽, 동아시아, 흑인, 라틴아메리카 등의 사람들이 모여 그

5) Alan Heath, Common Threads-Festivals of Folklore and Literature for Schools and Libraries- (London: The Scarecrow Press, Inc.)

6) Ibid. pp. 407-412.

들 국가의 다양성을 자부심으로 삼으면서 살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축제일은 종교적 혹은 국가적이거나 다른 문화의 많은 전통을 토대로 하고 있다.

2. 미국의 축제복식

말콤 Malcom은 의복이나 의상들은 문화적인 현상이며 의복은 하나의 성명서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⁷⁾

7) Malcom Barnard, FashionAs Communication, London and New York, 1996, p.32.

갱스 Gans(1979)는 문화이식과 동화는 미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보고 다른 민족집단의 제 3-4세대는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와 조상들이 이주민으로서 민족적 조직체를 필요로 했던 만큼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민족 중심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상징이 수용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갱스는 민족 중심성 상징은 첫째 원래의 고국문화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향수이며 둘째로 매일 매일의 행동에 구체화 되지 않고도 경험될 수 있는 전통에 대한 애착심과 자만심에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⁸⁾

8) Kaiser, Susan, 김순심 의역,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1990, p.441

이민으로 시작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민족 중심성을 위해 혹은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자신의 뿌리인 전통에 더욱 더 집착 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열심히 즐기고 그에 맞춘 다양한 축제 복식들을 착용하면서 이를 확인 하고자 애써 왔다.

그러면서도 의복에서의 구분이 오랜 동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계 공동체로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과 집단은 의복을 통한 분명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추구한다.⁹⁾

9) Roach, E. M. and Eicher, B. J., The Visible Self, Prentice Hall, 1973.

자신의 전통을 찾고자 함이 개인이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한 집단의 정체 확립이거나 향수이거나 간에 이렇게 유지된 각 문화들이 모여져 미국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미국에는 유럽, 동아시아, 흑인, 라틴아메리카 등의 사람들이 모여 그들 국가의 다양성을 자부심으로 삼으면서 살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축제일은 종교적 혹은 국가적이거나 다른 문화의 많은 전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의복이나 의상들은 문화적인 현상이며 의복은 하나의 성명서를 만들어 낸다.

1) 지역별

터너 (R. Turner Wilcox)는 1965년에 미국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축제의상을 10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데¹⁰⁾ 구체적인 축제의 종류나 의상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축제행사 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의상들을 지역 혹은 역사적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터너가 제시한 것 중 미국령인 푸에르토 리코와 버진 아이랜드 의상을 제외한 9종류의 의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0) R. Turner Wilcox, Folk and Festival Costume of the Worl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5), Plate 95-104.

① 알래스카 의상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스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의 조상은 아시아

인으로 추정되며 에스키모, 인디언, 알류트족들이 인구 분포의 주를 이룬다. 상징적 표시가 있는 토렘 기둥, 모자가 달린 털 파카 차림의 여인, 털 파카 차림의 남자와 어린이

② 카우보이 의상

두꺼운 면으로 된 청색이나 갈색의 바지에 가죽벨트, 부츠와 징, 면으로 된 셔츠에 밀짚모자 등으로 된 서부 스타일. 스페니쉬-멕시코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 몬타나, 와이오밍, 다코타의 카우보이들이 즐기는 양 가죽 조끼차림 등

③ 하와이 의상

하와이에는 일본, 필리핀, 중국, 한국 등에서 온 초기 이민들이 살기 때문에 이들의 고유 의상들과 훌라 춤의 의상이 있다.

④ 미국의 이 곳 저 곳에서 볼 수 있는 의상

㉑ 1800년대 러시아 교회가 들어선 펜실바니아에서 볼 수 있는 17세기풍의 러시아 남녀의 고유 의상

㉒ 1880년에 이민와서 뉴욕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폴란드인의 전통 남녀의상. 1938년 이래 계속되어 오는 추수감사 축제의 의상이기도 하다.

㉓ 불교를 믿는 몽골리안들로 뉴 저지(New Jersey)에 뒤 늦게 이민왔으며 붉은 색 계통의 승려복을 입는다.

⑤ 인디언 의상

여러 종류의 인디언 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 문화의 내용이 다르며 착용하는 의복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뉴 멕시코(New Mexico)와 텍사스(Texas), 오레건(Oregon)과 와이오밍(Wyoming)에 사는 인디언들의 고유 의상

⑥ 나체즈(Natchez), 미시시피 의상

남북 전쟁 당시의 화려한 저택에서 부유하게 살던 시절의 의상들로 이 곳에서는 1932년 이래 필그림에이지 먼스(Pilgrimage Month)라는 축제를 벌이며 축제기간 동안 당시의 의상들을 입는다.

⑦ 뉴 멕시코와 텍사스

뉴 멕시코와 텍사스는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점령지였으나 후에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뉴 멕시코는 원래 주니(Zuni) 인디언들이 살았고(그들은 지금도 곳곳에 푸에블로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독자적인 형태로 살고 있다) 스페인, 멕시코를 거쳐 미국의 47번째 州가 된 곳이므로 현재도 다른 州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다. 텍사스의 샌안토니오(San Antonio)의 축제 의상들은 스페인의 전통 의상들이다. 뉴 멕시코 의상은 원주민인 주니, 나바호(Navajo) 인디언의 의상들이다.

⑧ 오레건과 와이오밍 :

원주민인 카이저스(Cayuse) 인디언들의 의상과 카우보이 의상이 있고 1890년대 오레건에 도착한 바스크 계통의 스페인 의상들

⑨ 펜실바니아 의상

미국에서는 극도로 종교적인 단체 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접촉까지 꺼린 채 살아가는 소수 집단이 있다. 생필품이나 저장 식품, 그들만의 특색을 지닌 물건들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하는 이들 집단 거주지에 가 보면 그들만의 의상을 입고 생활하고 있다. 1683년에 펜실바니아로 건너온 메노파(Mennonites)의 하나인 아미쉬(Amish) 교도들의 의상, 퀘이커(Quaker), 웨이커(Shaker)교인들의 의상, 대체로 산체를 많이 가리는 것들로 색상은 무채색이거나 어두운 색으로 보수적인 모습들이다.

이상과 같은 정리에서 미국은 각 州나 혹은 도시마다 그 곳에 모여든 인종이나 민족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축제나 명절을 기념하는 의상들도 그들만의 고유 의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축제별

우리나라에서는 歲時風俗이라 하여 가족과 친족의 유대관계,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의례와 놀이, 조상숭배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신앙, 다양한 일과 휴식의 조화, 그리고 먹거리의 풍습 등이 조화를 이루며 응축되어 있다. 또한 歲時儀禮는 일년을 기준으로하여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歲時風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집단이 일년동안 주기적으로 되풀이 하는 연중행사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¹¹⁾

미국에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우리나라의 歲時風俗 행사처럼 벌이는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있다. 또한 이 때 행하는 게임, 음식등도 축제의 종류마다 참으로 다양하다.

이 글에서 미국인들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때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을 살펴보고 그에 사용되는 의상들을 알아 볼 것이다.

미국의 페스티벌이나 축제일을 다룬 책들은 각기 그 수록된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서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던 칠월 칠석이나 冬쫄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날 들인지의 여부와는 다른 것은 물론이다.

인터넷에 소개되는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축제일은 50가지가 넘으며 유대인들의 명절만도 20가지가 넘게 소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축제행사에 독특한 의상이 보여지는 경우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① 발렌타인스 데이(St. Valentine's Day)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2월 14일인 이 날은 빼 놓을 수 없는 연례행사로 여기며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들에게 각종 선물이나 특히 초콜릿 등을 주고 받는 날이 되어버린 지 오래 되었다. 우리 전통의 명절도 아니면서 서구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 들인 상술이 부추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상대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 아닐 수 없다.

로마 시대에 군사를 동원하기 위하여 미혼 남성들의 결혼을 강제로 막았던 시기에 비밀스럽게 남녀의 사랑을 인정하고 결합해 주었던 사랑의 성자 발렌타인이 죽은날을 추모하는 의미가 있으며 '발렌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하는 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 중세때는 나무 스펀이나 열쇠, 열쇠고리 등을 선물로 주고 받는 것 이외

11) 박부진, 서울의 생활문화 -전통의 전승과 변화-, '99 서울 역사문화 학술대회 -서울의 전통문화 어제와 오늘- 주제발표, 1999

에 옷 소매에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새겨 넣고 일주일 동안 그 옷을 입고 다니던 풍습도 있었다. 요즘은 이 날 사랑하는 이에게 옷을 선물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사랑을 허락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날인 만큼 물론 주로 사용되는 색은 분홍이나 빨강이며 하트(heart)를 새겨 넣은 의복이나 과자류가 등장한다. 색상과 하트 디자인 외에도 이 날을 위한 물건들은 반짝거리고, 매끄럽거나 혹은 부드러운 실크의 감촉을 내고 있어 질감의 특성 또한 사랑이나 우정을 표현하는 데 충실하고자 한다.

②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St. Patrick's Day)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인의 수호신이며 그가 죽은 3월 17일 (461년)을 기념하는 날로 아일랜드인들과 아이리쉬-아메리칸들의 축제일이다. 아일랜드에서는 법적 공휴일이며 미국에서는 1737년 보스턴에서 처음으로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는데 법적 공휴일은 아니지만 각 도시마다 행사를 벌이는데 뉴욕, 조지아주의 사바나(Savannah) 등의 거리 퍼레이드가 유명하다. 아일랜드인들은 이 날이 미국에서 축제로 자리잡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전 미국인들이 아이리쉬 축제를 즐긴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이 날의 역사, 마스코트 등에 대해 배우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봄을 맞는 첫 축제의 시작이라는 점이 축제 분위기의 신선함을 더 하는 듯하다.

이 축제의 상징적인 색은 아이리쉬 전통의 그린(green)으로 발렌타인스 데이의 분홍이나 빨강에 뒤이어 도시는 다시 그린의 물결로 뒤덮인다.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온통 그린색의 옷들을 입으며 여자아이들은 옷의 색에 맞추어 그린 리본까지 하는데, 특히 챙이 달리고 뽀족하고 긴 초록 모자를 남녀 노소가 쓰고 다니는 모습은 이 무렵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¹²⁾

원래 성 패트릭 자신의 색은 블루였으나 19세기부터 그린색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 날의 상징물인 샬락(shamrock)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샬락은 잎이 3장 인 크로바로 십자가와 성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 패트릭이 들판에서 설교를 할 때 발 밑의 크로바를 뜯어서 이를 기독교 교리에 견주어 설명한 것 때문에 이 축제일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이 크로바 잎과 그린색은 기념카드 등은 물론 과자 모양에도 사용되며 그린색 맥주를 파는 곳도 있고 도시에 따라 이 날은 분수에서 뿜어 나오는 물 줄기를 그린으로 물들여 놓기도 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더해 주기도 한다.

도시를 행진하는 퍼레이드에는 아이리쉬인들의 전통 의상을 입은 고적대가 지나가면서 연주를 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상징물로는 아주 작은 체구의 아일랜드 요정으로 구두를 만드는 레프리카(Leprechaun)이 있는데 그는 피부색은 회색이며 그린 자켓에 단추가 일곱개 달린 빨강색 코트를 입고 가죽으로 된 앞치마를 두르고 은 장식이 달린 구두에 블루 스타킹을 신은 모습이다. 이 요정은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어 상업광고에 까지 등

12) Robert Harrold, FOLK COSTUMES OF THE WORLD, Blandford, 1993, p.59

장하며 이 날을 위한 축제 의상에 한 몫 하는 것은 물론이다.

③ 이스터(Easter)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축제일이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 春分인 3월 21일의 보름, 그 날이 보름이 아니면 그 다음에 오는 보름 후 최초의 일요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스터 선데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이라하여 기독교계의 중요한 행사로 이 날 큰 교회나 성당 등에서 행한 설교나 미사의 내용들이 신문이나 TV에 보도되는 정도이지만 미국은 많은 축제일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유래한 것들이므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이날을 마치 자신의 나라의 전통적인 축제인 듯한 기분으로 즐긴다.

이 날은 예수의 새로운 탄생은 물론 계절적으로는 새 봄을 맞는 때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희망적인 날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전 가족이 모여 교회를 찾는 날이고 의복도 물론 새로운 봄 의상을 준비하게 된다. 특히 이 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흰 옷을 입는데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흰 옷까지 입지 않아도 되지만 몸과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생활에 바치려는 나름대로 깨끗하고 우아한 옷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자들의 경우 모자까지 갖추어 쓰는 正裝 모습이 이 날의 제대로 된 의상이다. 뉴욕시의 5번가에서 해마다 행해지는 "이스터 퍼레이드"는 이렇게 잘 차려입은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는 흥미로운 패션 이벤트로 오히려 유명하다.

④ 인디펜던스 데이(Independence Day)

1776년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로 오직 미국만의 명절이며 또한 비종교적인 축제일이다. 여러 가지 행사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백화점 세일까지 곁들여 여름의 시작이 신나고 즐거워진다. 이 날만큼은 의상도 가장 미국적이 된다.

그것은 바로 미국 국기를 주제로 하는 아이템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미국국기인 星條旗를 내걸고 아예 이 성조기가 새겨진 티 셔츠나 조끼를 입던지 아니면 청색, 백색, 빨강을 조화시킨 차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축제일들이 이 나라저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나 자신의 조상 혹은 다른 민족의 조상들이 즐기던 것인데 반하여 이 날 만큼은 이 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⑤ 팽스기빙 데이 (Thanksgiving Day)

1621년 청교도 이주자들이 미국땅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에 대한 축하 잔치를 시작하였고 미국 페스티발의 효시가 되었다.¹³⁾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링컨 대통령에 의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기적 팽스기빙 데이가 시작 되었고 194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 국경일이 되었다.¹⁴⁾

축제의 시작 자체가 새로운 땅에 자리잡은 초기 이민자들로 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어떤 명절보다도 의미깊게 이 기간을 즐긴다. 이 무렵이 되면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잘 구어진 통찰면조 고기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은 연례적인 뉴스거리 중 하나가 되곤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국의 추수 감사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복을 떠올리기 보다는 먹거리가 독특한 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13) Dorothy Gladys Spicer, The Book of Festivals, Gale Research Company Book Tower, p. 19

14)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Family Holidays Around the World, p.13

15) Joyce Harlow & Victoria Sabrina, Holiday Story Play Costumes, Cooking, Music, and More PreK-4, TEACHER IDEAS PRESS (Colorado, 1993), p.36.

그러나 이즈음에 미국의 각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간단한 연극이나 스토리를 들려 주면서 그들의 역사를 소개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특별한 의상이 이용된다.¹⁵⁾

그것은 신천지에 첫 발을 디딘 청교도들과 그 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물론 1600년대 검소한 청교도들의 의상과 황색이나 갈색 계통의 술이 달린 튜닉에 구슬이나 은 장식이 달린 벨트를 하고 술이 달린 다리싸개를 하고 있는 인디언 의상 등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여기에는 스토리의 재미를 더 하고 역사적 내용을 확실히 다루기 위해 칠면조와 미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등도 등장하여 대륙 발견 이후 청교도가 미국에 발을 디게 되고 인디언들과 만나며 칠면조 고기로 그들의 조상과 추수감사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한다.

이 무렵 옷감이나 미술용품을 파는 가게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인디언 의상을 팔거나 아니면 황색, 갈색 등의 옷감을 잔뜩 쌓아 놓고 팔고 있으며 인디언들의 장식품의 재료로 색색가지 구슬, 버클의 재료까지 진열대에 늘어 놓고 있다. 백인들의 미대륙 도착 이후 인디언의 위치는 사실 보잘 것이 없다. 동맹을 가장하여 많은 인디언의 영토를 빼앗았고 인디언을 죽인 후 이제는 그들을 한 곳에 몰아 놓고 제대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는 이제는 박물관 전시용이나 상업적 소재로 밖에는 쓰이지 않지만 미국인들 자신도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는 인디언의 문화가 역사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⑥ 할로윈(Halloween)

할로윈은 알프스 북쪽에서 발틱해에 이르는 유럽지역에 살았던 켈트족들이 즐기던 명절로서 미국에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왔다.¹⁶⁾

켈트족들은 초자연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를 믿고 있었으며 11월 1일을 죽음의 날로 여기며 죽은 자들이 죽음의 땅으로 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악령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 날인 10월 31일 밤 자신을 귀신이나 요정 등으로 변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할로윈 때 이런 변장을 하는 놀이를 즐긴다.

10월 31일 밤 어린이들은 '트릭 오어 트리트'(trick or treat: 과자를 안 주면 장난을 친다)라는 말을 외치며 이웃집을 방문하면 집 주인은 과자, 사탕, 선물 등을 준비하였다가 아이들이 가져 온 주머니에 넣어주거나 주인이 없더라도 집 앞에 이것들을 준비 해 두어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장난'의 희생자가 되는데 호박 던지기, 달걀 던지기, 화장지로 물건들을 감아 놓기, 문 두드리고 도망가기 등 복수전이 다양하다.

집집마다 크고 넓직한 호박에 눈, 코, 입 등을 뚫고 그 안에 전등을 켜 놓은 광경은 영화나 잡지 등을 통해 우리에게 제법 익숙하기도 하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특별한 장소에서 이 날을 위한 가면무도회 비슷한 행사를 벌이는 곳도 있지만 미국에서의 할로윈 즐기기는 대단하다.

이 무렵이 되면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할로윈 의상 준비를 위해 가게를 찾게 되는데 색상은 오렌지색과 검정이 상징적이나 보라색도 많이 쓰이고 의상의 종류는 죽음의 상징인 유령이나 귀신 혹은 해골, 마귀 등의 험악한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나 때로는 시대복이나 귀여운 의상 등도 있으며 이에 맞는 가면과 장신구등도 준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⑥ 크리스마스(Christmas)

크리스마스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전후 대체로 일주일 이상을 종교를 초월해서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즐기면서 한 해의 끝인 12월을 마감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산타 클로오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축제 중에 으뜸인 날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색은 아는데로 초록과 빨강이다. 초록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나타내는 소나무나 전나무 등의 상록수를 나타내고 빨강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유래하는 사과나 혹은 예수가 흘린 피를 의미하는 붉은 열매를 표현하는 것으로 초기 로마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¹⁷⁾

미국에서는 1800년대 초에 펜실바니아에 정착한 독일인들이 이러한 장식의 처음 시작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퍼진 것이다. 미국인들의 이즈음이 되면 어른, 아이 또는 장소의 구별 없이 초록과 빨강색으로 된 옷을 준비하여 입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부터 갓난아이에 이르기까지 수퍼나 학교나 공공기관 등 어느 곳에서든 이런 차림을 볼 수 있고 악세사리는 물론 스타킹까지도 맞추어서 풀 세트로 갖춘 차림새를 즐긴다.

오늘날은 이렇듯 크리스마스가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었지만 사실상 북부에 정착했던 청교도들과 남부에 정착하여 살던 이민자들 사이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청교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 날은 결코 축제의 의미를 갖지 않았으나 남부인들은 그들과는 달리 미리 준비한 좋은 음식과 과자들로 배를 불리며 즐기는 축일로 지냈다.¹⁸⁾

⑦ 기타 축제일

뉴 이어즈 데이(New Year's Day)는 미국의 축제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풍습에 따라 새 날을 맞이하는 방법만 다를 뿐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유의 행사를 하는 세계적인 명절이다. 미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날 동일한 제목의 명절을 맞이하지만 이민화서 지내는 사람들은 각각의 민족, 인종별로 그들만의 음식이나 의복들을 준비한 즐기는 내용들은 서로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는 날이다.

싱코 드 메이요(Cinco De Mayo)는 멕시코인들이 5월 5일날 즐기는 명절로서 멕시코 아메리칸들은 이 날 남자들의 경우 흰색 면바지와 셔츠, 챙이 넓은 모자인 сомbrero(sombrero)를 쓰고 가죽 샌들인 우아라 체스(huaraches)를 신는다. 여자들은 보통 블라우스에 길고 풍성한 스커트에 맨 발차림이다. 이보다 조금 화려하지만 또 하나의 멕시코 전통 의상중 하나인 치나 뽀빨라나(china poblana)도 즐겨 입으며

17) The World Book Encyclopedia, Vol. 3. p.1425. Field Enterprises Educational Corporation

18) Ibid. p. 1428

19) Ibid, p. 4992.

20) Los Angeles Times, 1996. 12. 13

¹⁹⁾ 전통적인 의상과 함께 춤과 음악을 즐긴다. 관자(Kwanzaa)는 비 종교적인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이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즐기는 축제로 검정, 빨강, 초록의 원시적이며 아프리카풍의 색상들을 이용하여 집안 장식을 하거나 아프리카 토속의상을 준비한다.²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전통 한복을 입을 일이 많지는 않지만 역시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이 되면 한복을 입고 나들이를 하거나 한국인들끼리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누카(Hanukkah) 혹은 차누카(Chanukah)는 유대인들의 명절로 12월 13일부터 21일 까지 8일 밤을 연속하는 축제로 8개의 촛대와 촛불이 상징적이다. 물론 평소에 유대인 남자들은 그들 고유의 모자인 야멀크스(yarmulkes)를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이 축제일이나 결혼식 같은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이 모자를 착용한다.

이 날은 다른 민족의 명절에 비해 비교적 많이 알려져서 매스컴에서 이 축제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알리는 경우는 흔하며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이 날의 의미와 상징들을 배우고 있다.

4. 만들어지는 전통복식

미국에서는 여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은 바비(Barbie)인 듯하다.

1950년대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이 인형은 그 동안 시대의 흐름과 함께 체형과 의상을 계속 바꾸어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생산될 때마다 사회적으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²¹⁾

21) Susan J. Dickey, "We Girls Can Do Anything - Right Barbie!" Patricia A. Cunningham & Susan Voso Lab, Dress and Popular Culture,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Popular Press, 1991

이와같은 여러 인형들 중에는 미국인이 그들의 전통 복식에 대한 분류와 관심을 확실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 바로 「아메리칸 걸(american girl)」이 그것이다. 플레전트(Pleasant)라는 회사에서는 1986년부터 한 소녀가 주인공인 소녀 취향의 가족사적인 소설을 주인공 이름을 제목으로 하여 현재까지 여섯가지 책을 발행했는데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는 2-3권씩의 분량이다.²²⁾

22) American Girl 1998 Holiday Catalogue, Pleasant Company.

매번 탄생하는 이 주인공들과 그 가족들은 바로 미국의 역사 변환기에 살아온 그들 조상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아메리칸 걸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진정한 미국인은 어떤이들인가'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까지 주고 있다.

각 주인공은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금발의 백인소녀일 수도 있고 인디언이기도 하고 스페인 소녀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을 알게 함은 물론 미국 역사 속에서 대표되는 민족이나 시대를 구분하여 그들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의복을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항상 소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펼치는 잔잔한 줄거리는 미국의 미국 역사의 변환기를 다시 돌아 보게 하고 그 시대를 살아온 그들의 조상의 삶을 느끼게 하며 책 속에는 스토리 전개에 따라 당시의 풍습, 살림도구, 음식, 의상 등에 대해서도 마치 사전처럼 삽화 혹은 사진과 함께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어 한 권을 읽고 나면 미국의 한 시대의 역사를 간략히 되돌아 보는 듯 하다.

이 회사에서는 삽화로 그려진 소설 속의 소녀 주인공을 모델로 하는 인형을 주문 판매하고 있는데 회사의 발표로는 그동안 50만권의 책과 4만개의 인형이 팔렸다고 한다.

주인공 인형들은 피부색은 물론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의복을 각기 다르게 입고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인형들이 그렇듯이 각 시대에 입었던 여러 벌의 갈아입힐 옷과 장신구, 신발, 심지어는 가구까지 곁들여 팔고 있다.

현재까지 등장한 6명의 아메리칸 걸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774년의 소녀 펠리시티(Felicity Merriman)로 그들 가족은 영국에서 온 미국 초기 이민자들로 그녀는 전형적인 백인이며 푸른 눈동자이고 금발이다. 우아하고 품위있는 예절과 글씨체까지 가정교사에게 교육받으며 귀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식구들 모두가 미국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버지니아주의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이 곳은 지금 도이민 초기의 전통적인 모습대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여 주는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이며 그녀는 당연히 18세기 유럽 의상을 입고 있다.

인형이 입고 있는 대표적인 옷은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꽃과 줄무늬가 있는 가운, 흰색의 울 스타킹, 검은 구두에 머리에는 둥근 형의 모 캡(mob cap)을 썼다. 무릎에는 가터(garter)를 했고 레이스 달린 손수건과 손주머니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차과 페티코트, 스토마커가 달린 가운, 일 할 때 입는 에이프론을 두른 가운, 승마복으로는 브리치스(breeches)와 자켓과 스커트가 조합된 라이딩 해빗(Riding Habit)과 모자가 있다.²³⁾

2)1824년의 호세피나(Josefina Montoya)로 스페인 소녀이며 그녀의 가족은 뉴멕시코(New Mexico : 원래 멕시코의 영토였고 후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으며 1846년 미국의 47번째 州가 된 곳)의 란초(rancho: 대목장을 일컫는 스페인어)에서 살았다. 머리색은 검고 눈동자는 갈색, 피부는 황색이다.

히스패닉이긴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멕시코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생활방식은 멕시코풍이다. 그녀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멕시코 전통 의복 스타일로 레이스가 달리고 주름이 풍성한 흰색의 까미사(camisa)와 풍성한 주름 스커트에 허리에는 새쉬(sash)를 하고 가죽으로 된 모캐신(moccasin)을 신고 있다. 이외에도 색상이 다른 스커트, 까미사, 속바지인 팜탈레뜨(pantalettes), 머리에 두르는 만피야(mantilla)와 레보조(rebozo), 밀짚 모자, 가죽 조끼, 멕시코 남자들이 위에 걸치는 사라삐(sarape) 등이 소개된다.²⁴⁾

3)서부 개척시대인 1800년대의 커스틴(Kirsten Larson)으로 스웨덴에서 온 소녀로 푸른 색 눈에 금발이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 스웨디쉬(Swedish)인 까담에 전체적인 의상을 19세기 유럽의상이 기본이어서 칼리코(calico) 드레스에 에이프론을 드레스 밑에는 흰색의 팜탈레뜨(pantalettes)를 입었으며 스타킹을 신고 머리에는 선 본넛(sun bonnet)을 쓴다. 스웨디쉬들은 크리스마스 때 쉐 루시아(Lucia)를 축하하는 의식을 지내는데 이를 위한 소녀들의 전통

23) Valerie Tripp, Meet FELICITY An American Girl, Pleasant Company, 1991

24) Valerie Tripp, Meet FELICITY An American Girl, Pleasant Company, 1991

적 의상은 뿔 러시아 가운데이다. 이민 온 나라에서의 첫 크리스마스에 이 소녀는 흰 색 가운데 붉은 색 새쉬를 허리에 두르며, 머리에는 초록과 빨강의 화관을 쓰고 그 위에 촛불을 쬐는 장식을 하고 붉은 색의 머리 리본과 흰색과 빨강의 줄무늬 양말까지 갖추어 완전한 성 러시아 가운데를 입고 전통적인 스웨덴 방법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낸다.

이외에 그녀가 스웨덴을 떠날 때 입었던 유럽풍 던들(dirndle)스커트가 있는데 이것은 흰 색의 머슬린으로 만든 페전트(peasant)블라우스에 줄무늬 스커트로 블라우스 위에는 앞 중심에 구멍에 끼워 있는 리본으로 몸을 조이게 하는 격자무늬 조끼를 입는다.²⁵⁾

25) Connie Porter, Meet KIRSTEN, -----, 1993.

4) 1864년의 소녀 애디(Addy Waker)는 검은 곱슬머리의 흑인이다. 이 시기는 미국에서 남북전쟁(1861-65)이 일어나던 때로 이 소녀의 가족들은 노예로 지내던 남부에서 북부로 자유를 찾아 탈출한다. 1864년에는 미국의 많은 소녀들이 아프리카 스타일로 머리를 땋아 리본으로 묶고 귀에는 귀를 뚫어 귀걸이를 하였는데 이 소녀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이외의 의상들은 아프리카 흑인의 의상들은 아니고 남북전쟁 당시의 의복들로 전쟁 당시의 여군이나 간호원의 유니폼의 영향으로 유행되었던 청색 수트와 흰색 블라우스 등이 있다.²⁶⁾

26) -----, Meet ADDY An American Girl, -----, 1993

5) 1901년의 소녀 사만다(Samantha Parkington)로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풍으로 생활한다. 소녀의 의복이지만 어른들의 것과 동일한 스타일과 색상, 질감등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럽고 우아한 의상을 입고 있다.²⁷⁾

27) Susan S. Adler, Meet SAMANTHA An American Girl, -----, 1986.

6) 1944년의 소녀 몰리(Molly McIntire)로 회색 눈에 금발이며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있는 미국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살고 있다. 소녀가 입은 당시의 유행을 반영한 의복은 짙은 청색의 스웨터로 가슴 부분에는 초록과 빨강으로 다이아몬드 무늬를 넣어 짠 것이었으며 목 부분에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흰색 칼라(dickey)를 달았다. 이외에 흰 색 블라우스에 격자무늬 점퍼 스커트, 프린세스 라인의 벨벳 드레스 등이 있다.²⁸⁾

28) Valerie Tripp, Meet MOLLY An American Girl, -----, 1986.

물론 이와같은 인형들의 탄생은 약삭빠른 상인들의 장사 속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으나 소설 자체는 미국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며 소설이 제시하는 시대 분류는 역사학적인 분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내용 혹은 인형이 미국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IV. 결 론

역사와 문화는 그저 대대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임을 미국을 통해 알게 된다. 한복이라는 한 가지 종류의 옷을 우리의 전통복식이라고 여기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다양한 의복을 전통복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역사와 문화 속에 나타난 다양한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축제를 즐기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와 문화 만큼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의복들을 그들의 전통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의 역사 초기부터 시작되어 연대순으로 이어지는 서구 유행복들, 각 지역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들의 이민 조상들의 의복들, 그리고 비록 유래는 각각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여 즐기는 축제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축제 복식, 게다가 자신들의 역사를 차근 차근 정리하여 민족과 시대를 모두 수용하면서 만들어 낸 미국을 대표하는 복식의 제시들이 바로 미국의 전통복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주영, 황혜성, 김연진, 조지향, 김형인 공저. 미국 현대사. 서울:비봉출판사. p.329.
2. Nye David, 임찬빈 역. 현대의 미국사회. 탐구당. p. 194-195.
3. 새뮤얼 헌팅턴.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p. 437-438.
4. 마빈 해리스. 원재길 옮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황금가지.
5. Thomson; Sue Ellen and Carlson, Babara W. Holidays, Festivals and Celebrations of the World Dictionary. Omnigraphics Inc.(Detroit). p. x v - x x ii.
6. Heath, Alan. Common Threads- Festivals of Folklore and Literature for Schools and Libraries. The Scarecrow Press, Inc., p x ii.
7. Roach, E. M. and Eicher, B. J. The Visible Self. Prentice Hall, 1973.
8. R Turner Wilcox, Folk and Festival Costume of the World, Charles Scribner's Sons, 1965, Plate 95-104.
9. Harrold, Robert. FOLK COSTUMES OF THE WORLD. Blandford, 1993. p. 59.
10. Spicer, Dorothy Gladys. The Book of Festivals. Gale Research Company Book Tower. p. 19.
11.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Family Holidays Around the World. p. 1.
12. Harlow, Joyce & Sabrina Victoria. Holiday Story Play Costumes. Cooking, Music, and More. Pre K-4. Teacher Ideas Press. p. 36.
13. Timothy, Roberts. The Celt In Myth & Legend. Friedman Fairfax Publishing. 1995. pp. 18-21.
14. 박부진. 서울의 생활문화 -전통의 전승과 변화 - '99 서울 역사문화 학술대회 - 서울의 전통문화 어제와 오늘- 주제 발표. 1999.)
15. The World Book Encyclopedia. Vol. 3. p. 1425. Field Enterprises Educational Coporation
16. Los Angeles Times, 1996. 12. 13.
17. Susan, Kaiser 김순심 외 역. 복식, 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1990.
18. American Girl 1998 Holiday Catalogue. Pleasant Company.
19. Tripp, Valerie. Meet FELICITY An American Girl. Pleasant Company. 1991.

- 20.----- . Meet JOSEFINA An American Girl. ----- . 1997.
- 21.Porter, Connie. Meet KIRSTEN An American Girl. ----- . 1993.
22. ----- . Meet ADDY An American Girl. ----- . 1993
- 23.Adler, Susan S. Meet SAMANTHA An American Girl----- .1986.
- 24.Tripp, Valerie. Meet MOLLY An American Girl. ----- .1986
- 25.Harrold, Robert. Folk Costume of The World. Blandford, 1993.
- 26.Gregory, Ruth W. Anniversaries and Holiday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 27.----- . Special Days. The Citadel Press. 1978.
- 28.Glassie, Henry. Irish Folk History. The Univ. of Pennsylvania. 1982
- 29.Wilcox, R. Turner. Folk and Festival Costume of the Worl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5.
- 30.Dickey, Susan. J. We Girls Can Do Anything - Right Barbie! -. Cunningham, Patricia. A. & Lab, Susan. Voso. Dress and Popular Culture.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Popular Press. 1991.
- 31.Malcom Barnard, FashionAs Communication, London and New York. 1996, p.32

Abstract

Folk Costume and Traditional Costume in America

Hee-Hyun, Lee*

Becaus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a short history, they don't have a special traditional culture or costumes. Besides, America is a multi-people country, they couldn't have a consistent culture or a traditional costumes. But even they have a short history, they are trying to make a new culture. America is searching for a representative culture, which are like festival costumes, regional costumes and costumes that are form the group of people, in there country and making it into their a convention culture.

This thesis is about the costumes of the U.S.A.'s famous festivals, traditional and festival costumes that are differ from every other states and the traditional costume that they are making it righ